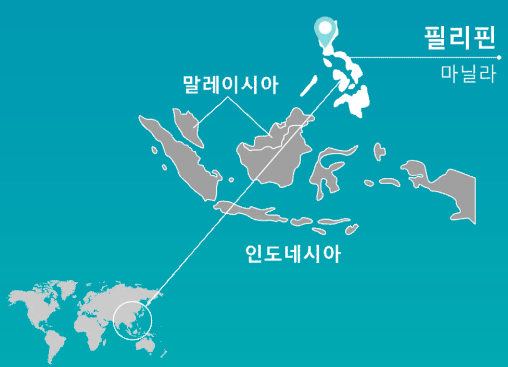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23년 9월 5일 | 책임연구원 이지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일반개황

면적 300천 ㎢	**인구** 1.1억 명 (2022)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적 외교정책
GDP 4,043억 달러 (2022)	**1인당GDP** 3,623달러 (2022)	**통화단위** Peso	**환율(U$기준)** 54.48 (2022)

- 필리핀은 태평양상의 타이완과 보르네오 섬 사이에 위치한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으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5~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9.5%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은 7.6%로 반등함.
- 2022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당선됨.
- 필리핀은 1억 명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으로서 미국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ASEAN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는 전반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수교)

주요협정 소포우편협정('61), 항공운수협정('69),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0), 문화협정('73), 무역협정('78), 경제기술협력협정('85),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86), 범죄인인도조약('96), 투자증진보호협정('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3), 형사사법공조조약('08), 무상원조기본협정('14),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7,126,437	9,659,072	12,306,078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
수 입	3,085,957	3,893,738	5,177,612	반도체, 산업용 전자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컴퓨터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45건, 4,846,15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제 성 장 률	6.1	-9.5	5.7	7.6	6.2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4	3.9	5.8	6.3
재정수지/GDP	-1.5	-5.5	-6.3	-5.2	-4.2

자료: IMF, EIU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내수 수요에 힘입어 2023년 6%대 경제성장 전망

- 필리핀 경제는 지난 10년 간 해외근로자 송금, 비즈니스 업무대행(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관광 산업 성장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연평균 5~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민간소비 급감으로 –9.5%의 역성장을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 및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냄.

  *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여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비핵심 업무를 제3의 서비스업체에 하도급하는 아웃소싱 전문 산업을 지칭함. 대표적인 사업으로 콜센터, IT 서비스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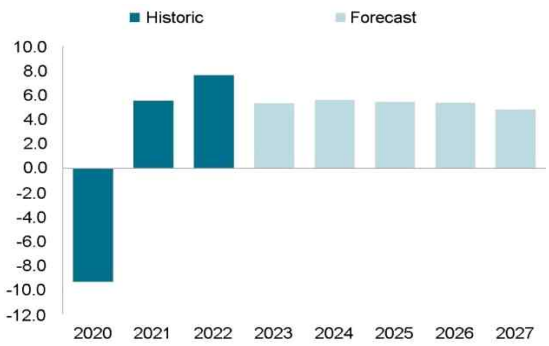
- 필리핀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의 인상적인 수준(7.6%)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으로 필리핀 정부의 목표치인 6~7%의 하단에는 이를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9.5%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7%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7.6%를 기록하였음.

  * 2023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 IMF 6.2%(7월), World Bank 6%(6월), ADB 6%(4월), S&P 5.8%(7월), EIU 5.4%(8월)

- 필리핀의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경제활동 재개, 내수 수요 확대, 관광 부문 회복 등에 힘입어 6.4%를 기록하면서 8분기 연속 6%를 상회했으나, 2분기에는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정부지출 축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4.3%를 기록함.

[그림 1] 필리핀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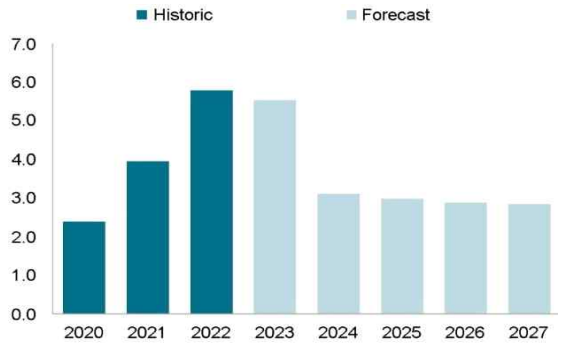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주) 2023년 8월 15일 기준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그림 2] 필리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 대비)



주) 2023년 8월 15일 기준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5~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

- 2023년 1월 필리핀의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과 주택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지난 1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인 8.7%를 기록함. Nikkei Asia에 따르면 필리핀은 주택, 수도,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부문에서 2022년 12월 7%, 2023년 1월 8.5%의 가격 인상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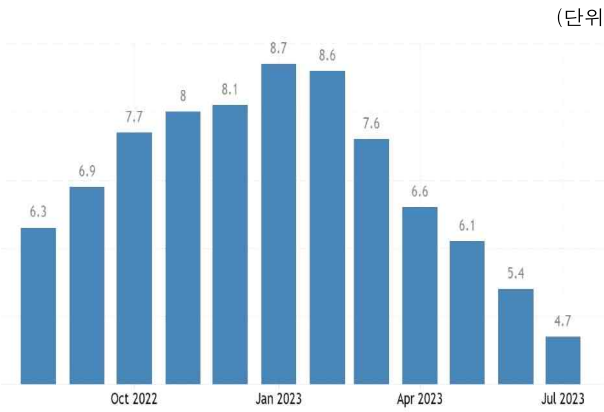
  * 2022년 필리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IMF 6.3%, EIU 5.5%, S&P Global 5.6%

- 필리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1월을 정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여 7월 4.7%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공식 목표 범위인 2~4%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상승률 감소의 주요 요인은 글로벌 원유 및 상품 가격 하락과 2022년 급락했던 페소화의 가치 회복 등을 꼽을 수 있음.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물가상승률 완화를 위해 옥수수와 돼지고기 수입 관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수입 쌀에 대한 관세를 40~50%에서 35%로 낮춘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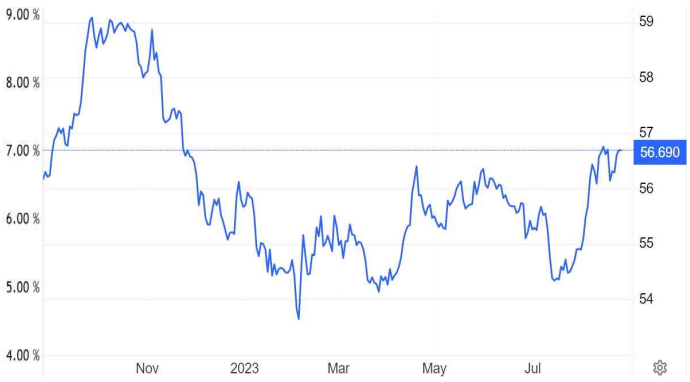
- 페소화는 2022년 큰 폭으로 절하된 후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속 중인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2023년 8월에는 2022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음.

[그림 3] 필리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그림 4] 페소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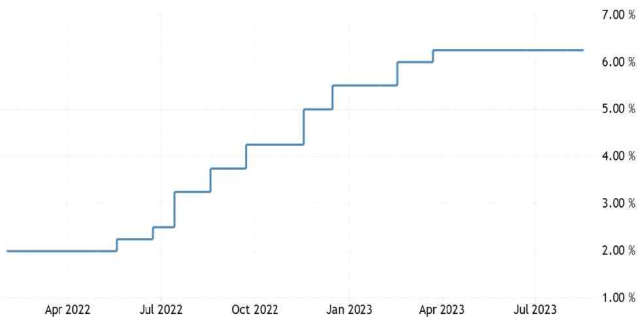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2년 5월 사상 최저였던 기준금리(2.0%)*를 인상키로 한 이후 2023년 3월까지 425bp를 인상했으나, 이후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6.25%로 동결함.

  * 2021.9월 2.0%→2022.5월 2.25%→2022.6월 2.5%
  2022.7월 3.25%→2022.8월 3.75%→2022.9월 4.25%
  2022.11월 5.0%→2022.12월 5.50%→2023.2월 6.0%
  2023.3월 6.25%→3연속 동결(2023.8월)

[그림 5] 필리핀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 2023년 8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함.

국내경제

세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다소 감소하나, 적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5%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발발 후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2020년 –5.7%, 2021년 –6.5%를 각각 기록했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지출이 감소하였으나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5.2%를 기록함.

- 2023년 필리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세수 증가와 정부지출 축소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4% 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 정부는 2028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미만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나, EIU는 필리핀 정부의 높은 부채이자 지급,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법인세 감소 등으로 목표 기한 내 재정적자 규모를 –3% 이하로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필리핀의 2023년 재정적자 규모 예측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큰데, IMF는 필리핀의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2%('23.4월), EIU –7.0%('23.8월), Fitch –2.8%('23.5월), Moody's –3.1%('23.3월)로 각각 전망함.
- 필리핀의 Benjamin E. Diokno 재무장관에 따르면, 디지털화된 세금 징수로 인해 2023년 상반기 동안 필리핀 정부의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7.68% 증가한 1조 9천억 페소를 기록했음(2022년 1조 7천억 페소). 상반기 세금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9.1% 증가했음.
- 반면, 상반기 정부지출은 2조 4천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이 1% 미만이며, 당초 계획 대비 6.6% 적게 지출되었음.
- 2023년 필리핀 정부 세수 목표는 GDP의 15.2%에 해당하는 3조 7,290억 페소(한화 약 88.8조 원)임.

- 필리핀은 중·단기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출 목표를 GDP의 5~6%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GDP 대비 정부지출은 20%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23년의 인프라 사업에 할당된 예산은 GDP의 5.3%로 그 대부분은 도로 사업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홍수 방지 사업, 지역개발, 건물 및 철도 건설에 투입될 예정임.

- 필리핀 정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9.5% 증액된 5조 7,680억 페소를 책정했으며(2023년 약 5조 3천억 페소), 필리핀 예산관리부 Amenah Pangandaman 장관에 따르면 예산은 교육, 인프라, 농업, 보건, 정부 디지털화 등에 우선적으로 할당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 상 수 지	-3,047	11,578	-5,943	-17,832	-24,329
경상수지/GDP	-0.8	3.2	-1.5	-4.4	-5.5
상 품 수 지	-49,312	-33,775	-52,806	-69,393	-81,414
상 품 수 출	53,477	48,212	54,228	57,448	49,652
상 품 수 입	102,788	81,987	107,034	126,841	131,066
외 환 보 유 액	78,051	96,466	94,721	82,312	84,038
총 외 채	83,618	98,488	106,429	111,268	117,635
총외채잔액/GDP	22.2	27.2	27.0	27.5	26.7
D.S.R.	8.1	8.2	9.2	7.7	8.7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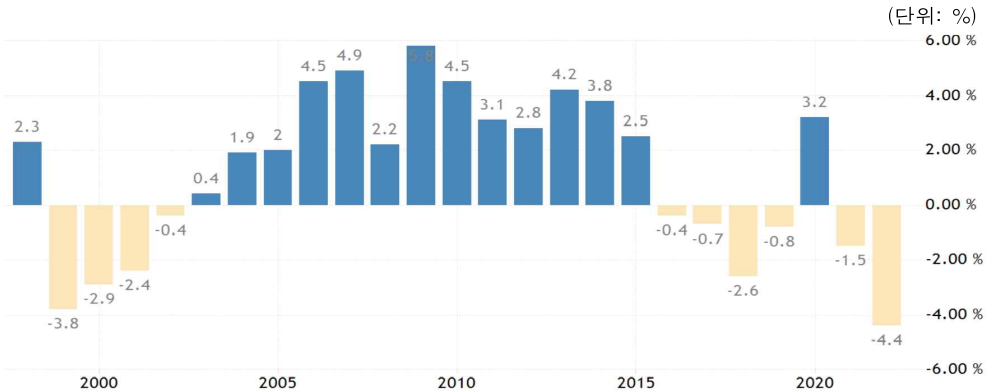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로 2023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필리핀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2022년을 제외하면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올해 글로벌 수요 약화로 상품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22년의 –4.4%에서 -5.5%로 악화될 전망임. 그러나 상품수지와 달리 관광 산업의 회복과 해외송금액의 증가로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EIU는 2024년부터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상품수지 개선과 해외송금의 견조한 성장으로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 폭이 감소해, 2027년에는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이 –0.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5.2% → 2025년: -4.0% → 2026년: –2.2% → 2027년: -0.6%

[그림 5] 필리핀의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Bangko Sentral NG Pilipinas

대외거래

- FitchConnect는 에너지 수입가격의 약세와 탄력적인 해외송금 유입으로 필리핀의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4%가 되겠으나,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필리핀의 상품수출 증가를 제한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외환보유액은 양호한 수준 유지

- 필리핀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1,013억 달러로 7.6개월 분의 상품 수입과 서비스 및 주요 지불을 감당할 수준임. 이는 연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외근로자 송금, BPO 부문 수익,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달러 유입 증가에 기인함.

  * 외환보유액 변동(억 달러, IMF) : 947.2('21) → 823.1('22) → 1,013('23.05) → 911.8('23^{f})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3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6~27%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3~24%,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8~9%와 105~110%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잔액(억 달러, OECD) : 790.0('18) → 836.2('19) → 984.9('20)→ 1,028.8('21) → 1,112.6('22^{f}) → 1,176.3('23^{f})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및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 8,587('22) → 9,697('23^{f}) → 9,917('24^{f}) → 10,157('25^{f})

경제구조 및 정책

구조적취약성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 산업 등 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구조

- 필리핀은 코로나19 이전 6~8%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부격차, 서비스업에 대한 편중, 취약한 제조업 등으로 경제성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GDP의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반면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발달이 취약함.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이 성장세를 보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함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미·중 갈등의 심화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 투자를 분산하고 있음에도 필리핀은 인프라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및 BPO 산업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BPO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만 12만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함. 다만, 필리핀의 BPO 산업의 경쟁력은 주로 인근 국가 대비 우월한 필리핀인들의 영어 구사능력과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화 기술, 로봇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광물자원 보유

- 필리핀은 인구가 1.1억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6억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임.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8%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편임. 아울러, 미국 식민지 경험과 영어 교육의 영향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력이 풍부함.

-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필리핀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나, 정부의 환경보호 우선 정책과 불안정한 사업개발 여건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2021년 필리핀 정부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2년부터 9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었던 신규 광산 개발 금지법의 효력을 중지하고 광산 개발을 재개하는 새 법안을 제정함.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2017년부터 금지해온 노천 광산 개발 및 채굴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의 대표적 자원 부국인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5위 국가이며, 금, 구리, 크롬 등의 광물도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음. 지난 수년 간 필리핀은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인도네시아 대신 니켈 생산량을 늘려 중국의 최대 니켈 공급국이 되었음. Fitch Solutions는 2020~28년 동안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이 해마다 8.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정책성과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나 세부적으로는 차별화 추구

-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전임자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역점을 두었던 인프라 프로그램('Build-Build-Build', BBB)*을 계승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예정대로 완료하겠다고 밝힘. 마르코스 정부는 전 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계승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Build Better More'(BBM)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4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 행정부는 2022년까지 필리핀을 상위 중소득국에 진입시키겠다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를 발표함. 이 정책은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가 사업환경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하는 'Build-Build-Build'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함.

- 2023년 3월 마르코스 행정부는 대중교통, 전력, 보건, 정보 기술, 수자원, 농업에 이르는 194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했음. 이 중 71개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며 나머지 123개 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조 페소(한화 약 215.3조 원)임.

  * 194개의 사업 중 95개는 진행 중, 8개는 정부 승인 득, 47개는 타당성 조사 진행 중, 그리고 나머지 44개는 사업 전 준비(pre-project preparation) 단계임.

- 마르코스 행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두테르테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도 계승하되, 마약범 단속과 법 집행보다는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구하며 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두고 있음.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발표

- 2023년 1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 14호를 통해 6개년 개발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을 승인함으로써 개방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필리핀의 장기 개발 청사진인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의 실천을 강조함.

  *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 위주의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함.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을 통해 거시경제 목표, 경제 및 사회 부문 발전전략, 6대 범분야 전략,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
- 중점 목표는 △2023년 6~7%, 2024~28년 6.5~8%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의 고용 창출(2028년까지 실업률 4~5% 달성), △물가 안정(2023년 2.5~4.5%, 2024~28년 2~4%), △재정건전성 강화(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28년까지 -3%로 감축, 공공부채 감축), △생산 부문 혁신, △빈곤 해소 등임.
- 필리핀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6대 범분야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민관 협력, 서비스화, 혁신 생태계 조성, 연계성 강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선정함.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차기 대선까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예상되나, 진영 간(마르코스-두테르테) 긴장 존재

- 2022년 5월 9일 치러진 대·총선에서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봉봉 마르코스의 득표율과 집권당에 유리한 총선 결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의 정치적 연합 등을 고려할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7년까지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마르코스 행정부는 큰 흐름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나,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권에 안착하고 나서 주요 정책에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추구함에 따라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사이의 긴장 관계가 형성됨. 이러한 긴장 관계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야당의 정치적 반대보다도 오히려 정권 안정성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 대신 마르코스 행정부의 예방과 치료에 치중한 '마약과의 전쟁', 지난 정권에서 소원했던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 등이 긴장 관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정책임.

사회안정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가 아젠다 발표

- 2022년 6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경제팀은 필리핀의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중상위소득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표로 8가지 사회·경제적 아젠다(8-point socioeconomic agenda)를 발표함.
- 8가지 아젠다를 발표한 재무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처,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 보장 등 국민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디지털 경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8가지 아젠다: 단기 목표] ①식량 안보 보장, 교통 및 물류비용 절감,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구매력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 ②보건 문제 해결, 사회보장 강화, 학습 기회 상실 문제 해결을 통해 취약성을 줄이고 코로나19의 피해 경감 ③행적 효율성 강화, 건전한 재정 운영,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보장을 통해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 확립
- [8가지 아젠다: 중·장기 목표] ④무역 및 투자 촉진, 기반시설 개선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⑤고용 증진, 연구 개발 장려, 혁신 및 디지털 경제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⑥지속가능한 해양자원에 중점을 둔 녹색경제 및 블루 경제 추구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⑦공공질서와 안전, 평화와 안정 유지 ⑧시장경쟁 강화, 기업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줄임으로써 평등한 경쟁의 장(場) 보장
- 현 정부의 경제팀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을 중상위소득국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3~2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8%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정치·사회안정

사회안정

Moody's는 필리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필리핀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노출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회복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리핀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태풍을 포함한 기후 관련 재난 발생률이 높고 많은 강수량이 빈번하게 홍수로 이어진다는 점, 노동인구의 상당한 비중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열피로(heat stress)*에 대한 높은 취약성, 깨끗한 식수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E-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발한 증상이 크고 수분과 염분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여 탈수 상태에 이른 것을 지칭함.

- **(사회)** 최근 일정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빈곤, 낮은 소득수준,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큰 개발격차와 소득 불평등, 비공식 부문 고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구조,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및 기본 서비스, 주거 시설 부족 등을 반영하여 사회 환경을 S-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정치적·법적 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을 상쇄하는 동시에 환경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위험을 노출하지 않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G-2(neutral–to-law)로 평가함.

국제관계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독립적 외교 추구

-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며 미국과는 거리를 둔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와는 달리,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 두테르테 행정부의 친중 행보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독립적 외교정책(independant foreign policy)을 추구할 것을 천명함.
-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2022년 9월 19일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미국이 함께하지 않는 필리핀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틀 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는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며 "필리핀은 당신의 파트너이며 동맹이자 친구"라고 발언함.

- 회담 종료 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3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확약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필리핀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4월 필리핀 정부는 동년 2월 필리핀과 미국이 맺은 '강화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던 5곳의 군사기지 외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발표함.

  *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과 EDCA를 체결한 2월, 필리핀은 영유권 갈등과 관련하여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함.

- 2014년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이 인도주의 목적과 해상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 5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DCA를 체결했음.

- 미군이 추가로 확보한 군사기지는 루손 섬 최북단 카가얀 주, 랄로 국제공항, 북부 이사벨라 주의 멜초르 델라 크루즈, 그리고 팔라완 섬 서부에 위치한 발라바크 섬에 있음.

- 새로 추가된 군사기지는 미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적합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과 인접해 있음.

[그림 6] 필리핀 내 미국 군사기지

자료: 연합뉴스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 한편, 필리핀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올 1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과 미국의 2023년 연례 합동 군사훈련(Balikatan)이 진행 중이었던 4월에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친강을 초청하여 1월에 있었던 두 정상(필리핀-중국) 간의 합의 내용을 실천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분쟁 지속

- 2012년 중국은 필리핀이 통제하는 스카보로 암초(Scarborough Shoal)를 무단 점유하고 이른바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음.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분쟁 당사국 이외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무시하고 있음.

- 올 2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 군도)에서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에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8월에는 동 지역에서 좌초된 군함을 향해 보급품과 건축자재를 싣고가는 필리핀 해경선에 중국 해안경비정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하는 지역은 필리핀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며, 중국이 자국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필리핀은 1984년 최초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재무재조정을 받는 등 한동안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23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4.8억 달러, 중장기 2.6억 달러로 총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승인잔액이 크게 줄어듦(25.2억 달러 → 7.4억 달러). 이 중 연체액은 180만 달러로, 연체비율(0.24%)이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3.06)	3등급(2022.06)
Moody's	Baa2(2022.09)	Baa2(2014.12)
Fitch	BBB(2023.05)	BBB(2022.10)

국제신용평가3사는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

- 국제신용평가3사는 필리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양호한 외채비중 및 정부채무 비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은행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7월 Fitch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재난 대응정책 완화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필리핀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며 공공채무도 감소함에 따라 2023년 5월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함.

종합의견

- 필리핀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의 인상적인 수준(7.6%)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으로 필리핀 정부의 목표치인 6~7%의 하단에는 이를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 경제는 2020년 –9.5%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7%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했으며, 2022년에는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7.6%의 성장을 기록했음.
- 올해 글로벌 수요 약화로 상품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22년의 –4.4%에서 -5.5%로 악화될 전망임. 그러나 상품수지와 달리 관광 부문의 회복과 해외송금액의 증가로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4.8억 달러, 중장기 2.6억 달러로 총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승인잔액이 크게 줄어듦(25.2억 달러 → 7.4억 달러). 이 중 연체액은 180만 달러로, 연체비율(0.24%)이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